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2호

8-9



6P/ 연중특별기획(5)
정신 건강, 싱글 사역

22P/ 소그룹 탐방(4)
산과 함께 '놀이'하는 하나님의 아이들,
"연뫼동이"

25p/칭찬합니다(16)
"김진환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50p/ 왓두유뽀리빙(4)
"가즈아~하와이!"
최은숙1 집사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걷히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나희덕 시집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창비, 1994. 10. 20) 중에서 〈귀뚜라미〉

가사: 나희덕 시 '귀뚜라미'
작곡, 노래: 안치환



CONTENTS

2025년 8- 9월호

04 이달의 말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김주용 위임목사

06 연중특별기획-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5)
정신건강, 싱글사역

연못골 광장

12 1018예수사랑 **은혜의 공동체** 윤정현 성도(중등부 3학년)
13 2030새벽이슬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다** 박예송 성도(HI청년부)
14 4050광장 **1)사춘기 아이와 2)40대 엄쪽이(엄마+금쪽이)** 정인진 집사(씽씽연동1구역)
15 살며생각하며 **선물 같은 성령의 열매** 문소희 공로권사(분당구역)

청년광장

16 HI청년부 **기도와 봉사, 말씀으로 정체성을 다져갑니다!**
18 HI청년들 이야기 **주일학교 수련회로 여름을 불태운 청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

20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5) **샤론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 '수선화와 백합화'** 김환 목사
22 소그룹 탐방(4) **산과 함께 '놀이'하는 하나님의 아이들, "연뫼동이"**
24 연동 북하우스(21) **당신이 알아야 하는 신유에 관한 일곱 가지 원리**
25 칭찬합니다(16) **'김진환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선교

26 선교지에서 온 편지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 소식**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28 중국어예배반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배운 여름수련회**
29 필리핀예배공동체 **필리핀 성도들을 위한 기초 한국어 과정**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30 청소년주일학교
38 여름사역
46 이웃과 함께하는 책바자회
47 천안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어린이대회

48 9,10월 행사 안내
49 2025년 YBS 가을학기 개강

연못골 사람들

50 왓두유뽀리빙(4) **연동교회를 사랑하는 최은숙1 집사 '가즈아 하와이!'**
52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19) **근무세무사 길지윤 청년**
54 새신자 어게인(22) **"믿음의 새로운 여정, 연동교회 덕분입니다!"** 김보성 성도(HI청년부)
56 지체들
68 교회 첫 출석 아기 / 새가족 소개
69 연동복지재단
70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71 연동컬러링



제목: 백합화(모작)
크기: 23×31cm
재료: 색연필
제작일: 2025년 1월
그림 내용: 부활과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백합화를 표현하였다.
작가: 김정혜 권사(개포수서구역)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후, 종종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자주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부담이 있으신 지 꼭 필요한 부분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틀려서 종종 부부싸움을 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한 성도님이 "목사님, 그때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다음 예배 때에는 '다르다'라고 수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과 "나는 너의 생각이 틀리다고 본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논쟁을 이끌게 할 것입니다. 거의 똑 같은 그림을 양쪽에 두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다른 그림을 찾는 놀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기 보다는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틀린 그림 찾기'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획일화되고 편향된 경쟁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 서로 배타시하고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어른들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등의 속담들로 자녀들을 교육해 왔고, 그것이 한국사회에 방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화의 흐름에 한국교회도 일부 이바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치판단이 강한 기독교 신앙은 '서로의 다름'보다는 '옳고 그름'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틀린 것에 대한 종교적 경계를 세상에 직접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때로는 사회의 순기능 역할도 했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견해를 틀리다고 하는 즉시, 서로는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는 틀린 사람이라고 단정하면서 교회마저 분열되고 갈라지는 동시에, 세상마저도 나눠지고 다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김주용 위임목사

물론 틀리다고 말해야 할 부분은 성경과 복음에 따라 분명한 기준과 원칙대로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표현해야 하고 겸손과 이해를 기반해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새 한국교회가 그런 품격과 겸손을 잃어버린 채, 나와 다른 세상과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극화되어가는 세상 속에 교회가 중재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부 안에 갈라치기를 하면서 편을 가르고 극단으로 향해 가며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선교는 커녕 교회의 신뢰도조차 밑바닥으로 끌어내는 목회자와 성도를 제대로된 치리와 권징을 하지 못하니, 교회는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다양함에 있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하는 능력과 함께 나와는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랑하며 구원하고자 하는 힘이 복음에 있었습니다. 12제자는 같은 직업과 같은 성품, 같은 인종, 같은 세상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적은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예수에 대해서 같은 관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른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에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4복음서를 통해 예수의 다른 네 가지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와 그룹이 모여 용광로처럼 뜨거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Different doesn't Mean Wrong). 신앙인으로 이 마음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사람을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틀리다고 보기 전, 조금만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정신 건강 싱글 사역

〈연중특별기획〉

1. 프롤로그, 유반젤리즘
2.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3.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
4.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5. 정신건강, 싱글 사역
6.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연중특별기획팀: 박윤신, 이경아, 임재철, 진상협 기자, 박현미 편집장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 선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다. 교회 규모와 성도 숫자로 대변되는 성장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교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다. 최근 사회학적 조사와 목회 현장의 증언은 한국교회가 이제 전인적이고 성경적인 돌봄의 공동체로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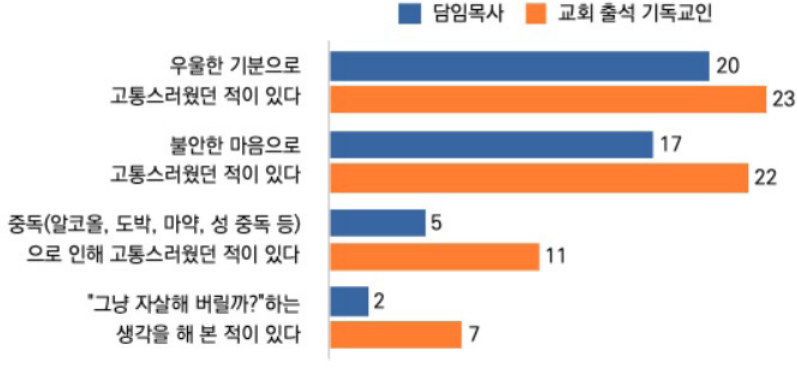
특히 두 가지 과제가 시급히 제기된다. 첫째는 성도의 정신건강 위기이며, 둘째는 싱글 세대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사역의 부재이다. 이 두 문제는 단순한 통계나 사회학적 현상을 넘어, 복음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도하느냐를 묻는 직접적인 외침이자, 한국교회의 내일을 결정짓는 갈림길이다.

정신건강 위기: 영혼의 병, 사회의 경고

통계가 드러낸 엄중한 현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5년 3월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성도 중 23%가 우울을 경험했으며 22%는 불안을 호소했다. 성도 11%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었고, 7%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의 토대를 흔드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림]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 (최근 2주 기준,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더욱 이 문제가 주목받는 것은 목회자 본인들도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담임목사 가운데 20%는 최근 우울감을 경험했고, 17%는 불안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영적 지도자의 영혼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5).

교회의 책임: 방관과 외면



하지만 교회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축소·회피해 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도의 우울과 불안은 많은 경우 단순히 '기도 부족의 결과',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오는 시험'으로 단정되었던 측면이 있으며, 전문 치료와 심리 상담은 '세속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시선마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교회는 성도의 실제 삶과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교회와 목회자가 현실의 문제에 답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청년의 눈에 교회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는 집단", 목회자는 "삶과 동떨어진 이상적 교훈만 말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다. 그 결과 교회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고, 젊은 세대의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목회자의 새로운 역할: 강인함이 아닌 정직한 연약함

보고서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95%가 "교회가 정신질환 성도를 치료와 돌봄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변화이지만, 실제 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강단의 메시지와 성도의 삶 사이의 간극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은폐한 채 무결한 존재처럼 행동할 때 성도와 청년은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느낀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며 오직 은혜만을 드러냈다(고후 12:7~9). 이제 목회자는 강인함이 아니라 정직한 연약함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투명하게 나누며,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태도가 교회와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일 것이다.

회복을 위한 신학적·실천적 해결책

문제 인식을 위한 신학적 시각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문제를 불신앙의 결과로만 보지 말고, 영혼·육체·정신의 통합적 건강의 하나로 이해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라고 증거한 바 있다.

전문가와의 협력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 돌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신과 의사, 상담가 등 전문가와 협력하고 상담이나 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는 말씀처럼, 교회는 성도의 정신적 짐을 실제적으로 함께 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진솔한 나눔 또한 중요하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는 명령처럼, 목회자의 솔직한 고백은 성도의 치유를 이끌어낼 소통의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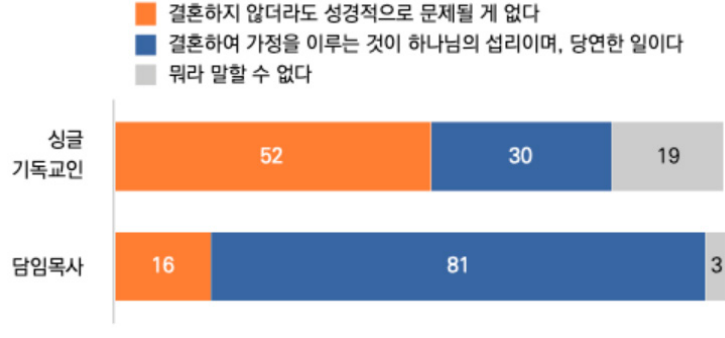
※ 우리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코칭 서비스를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면 ‘연동교회 홈페이지: 교육과 양육>연동상담코칭센터’에서 주요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사역: “결혼 대기자”라는 꼬리표를 넘어

교회와 싱글 세대의 괴리

같은 보고서는 싱글 성도의 교회 만족도가 48%에 불과한 반면, 기혼 성도의 만족도는 68%라고 밝혔다. 결혼관을 묻는 질문에서도 담임목회자의 81%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답했지만, 싱글 성도의 동의율은 30%에 불과했다. 오히려 응답자 중 52%는 “결혼하지 않아도 성경적으로 문제없다”고 답해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한국교회가 싱글 성도를 여전히 ‘결혼 대기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회의 설교와 담론은 여전히 가정과 결혼 중심에 머무르고, 싱글의 삶과 고민은 실제 목양 영역에서는 외면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 결과 싱글 청년들은 교회를 “나의 현실과는 무관한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교회의 무관심과 그 결과

많은 교회는 '싱글 사역'을 결혼 준비의 만남 기회나 교제 프로그램 정도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이러한 몰이해는 청년들이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청년들은 교회를 "현실을 무시하는 집단"으로, 목회자를 "삶과 동떨어진 교훈자"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

싱글 사역의 신학적 기초와 실천 방향

신학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전 7:7)고 말하며, 결혼과 독신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했다. 싱글의 삶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인정하며, 공동체의 편견과 불편한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

싱글 공동체 맞춤형 사역이 필요하다. 담임목회자 74%, 싱글 성도 73%가 모두 싱글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교회는 직장, 재정, 관계, 영성 등 실제적 삶을 다루는 공동체를 시급히 세워야 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5).

교회의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혼 중심 예배·교육·사역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와 생활 단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한다. 이러한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문제인식과 필요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싱글이 당당히 리더십과 사명을 담당하도록 교회와 공동체가 먼저 기회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4-5).

교회, 말씀의 뿌리로 돌아가라

정신건강 위기와 싱글 세대의 소외, 이 두 문제는 단순한 선택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로부터 신뢰를 잃고, 교회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고, 세대 간 단절의 본질적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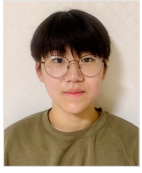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규모와 성도 숫자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세상의 슬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형제들의 정신적 아픔에 진지하게 공감하며, 싱글의 삶 또한 존중받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교회는 말씀의 뿌리로부터 시대의 질문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답게 성도들의 내면 깊은 상처를 함께 짊어지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를 존귀히 여길 때,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신뢰와 희망이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이며,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시금 '삶의 필요와 연결된 은혜의 자리'로 인식하게 하는 길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와 목회자의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성도 각자가 말씀을 따라 형제의 짐을 함께 지고(갈 6:2),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존중하며(고전 12:26),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생활을 실현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부르심 앞에 서 있다. 정신건강과 싱글 사역은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회가 회개와 갱신 속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말씀과 사랑의 권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다. 동시에 성도 개인 또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으로 응답할 때, 교회 전체는 시대의 질문 앞에 더욱 겸손하고 신실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은혜의 공동체



윤정현 성도
(중등부 3학년)

사람들에게는 설렘과 기대의 감정이 있다. 이번 여름 방학의 나에게 그 대상은 교회 수련회였다. 나에게 수련회는 교회 친구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며 좋은 추억들을 항상 주었기 때문에 수련회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두근거렸다. “중등부 수련회”는 8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깨움 UP’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깨움 UP’ 은 영적으로 깨어나 일어나서 주를 예배한다는 의미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별로 진행되었던 활동을 통해 함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배워 나갔다. 또한 물놀이, 센터학습, 그리고 학생 임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등으로 서로 더 친해지고 단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중등부 수련회의 인상 깊었던 점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모두가 함께 뛰며 찬양했던 모습들, 기도회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수련회 동안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음을 느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또 한 번 안겨준 이번 중등부 수련회에 이어 8월 7일(목)부터 9일(토)까지의 “주니어 앙상블 캠프”도 참여했다. 주니어 앙상블 캠프에서는 주어진 달란트대로 각자 자신의 악기를 연습하고 합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습 외에도 같이 서커스 공연을 보고 물놀이를 함께 하며 밤새 떠들면서 새 단원들뿐만 아니라 기존 단원들, 도와주러 와주신 청년 선생님들과 지휘자 선생님까지 서로 더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덕분에 장시간 동안의 개인 연습과 합주의 시간을 견디며 즐겁게 연주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중등부 수련회와 주니어 앙상블 캠프를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배웠다. 수련회의 즐거웠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들, 함께 악기로 연주했던 시간들까지 모두모두 소중하고 잊지 못할 기억들이었고, 그때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리와 추억들을 만들어주신 많은 선생님들, 전도사님, 지휘자 선생님,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모두모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여름 수련회 기간을 은혜롭게 끝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다



박예송 성도
(HI청년부)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고통에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깊은 우울과 고통 속에 머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심리 서적을 찾아 읽으며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마음을 온전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글쓰기 클래스〉를 만났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또 타인의 삶에 귀 기울이며 듣는 과정에서 이 모임이 단순히 글을 쓰는 자리가 아닌 나눔과 공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막상 마주해 보니 또 다른 회복의 장이 열리더군요. 한 사람의 진실한 글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을 느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글을 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글쓰기는 존재와 존재를 연결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제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고, 흘러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글로 쓰다 보니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러한 치유의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9월 25일, 〈끌어안는 글쓰기 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글쓰기 동아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마주하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랬듯이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글을 쓰지만, 그 글은 어쩌면 한 편의 기도일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글을 쓰며 마음을 열고, 때로는 서로의 고통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그의 삶을 끌어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울림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 이 글쓰기의 여정이 서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붙들고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엮어가는 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사춘기 아이와 2)40대 엄쪽이(엄마+금쪽이)



정인진 집사(씽씽연동1구역)

(공부하라고 하는 엄마의 잔소리에)
1) “엄마! 건강한 아이가 좋아,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좋아?”
2)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기관리를 잘해. 그래서 스스로 건강도 챙겨~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아!”
1) “엄마! 돈이 없지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 짧게 살되 아파. 그렇지만 돈이 많아! 어떤 삶을 살고 싶어?”
2) “짧게 살되 돈이 많은 삶! 돈이 있으면 짧은 인생 즐겁게 뭐라도 즐길 수 있겠지? 아쉬움이 조금 있는 삶이 좋아!”

1) “엄마! 엄마가 선생님이라면~공부만 잘하는 아이와 인사성 밝고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 좋은 아이, 어떤 아이가 좋을 것 같아?”
2)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이랑 친해지려고 인사도 잘해. 선생님 시간도 자기 시간도 중요시하는 애들일 텐데 쓸데없는 말은 또 안 할 거 아니야~”
1) “엄마! OOO는 벌써 고등학교 꺼 한번 돌고 다시 하고 있대~”
2) “OOO가 멀리 살고 너가 알았던 사람이잖아. 만약 너희반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넌 질투가 많이 났을 거야. 아님 완전히 떨어져서 ‘티쳐스’에 나와 있는 아이가 그랬다면? 아무 상관도 없겠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되면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잘되면 스쳐지나가는 이슈만 되는 거지~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잘되면 동경의 대상이 된대.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도 저 사람만큼 되야지~ 라는 목표대상이 될 수 있어. OOO가 너의 목표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고)
1) “엄마!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만날 거야?”
2) “기독교는 윤회사상, 다시 태어나는 삶은 없어! 이번이 끝인데... 한번 뿐인데...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나도 뛰어난 외모에 뛰어난 직업에 뛰어난 재력에 명예가 있는 삶도 아닌데 지금의 삶에 만족해야지~ 여기서 행복도 찾고 기쁨도 찾고 즐거움도 찾아야지~ 그리고 이 삶에 감사해야지~! 너희들이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 위에 조상의 조상의 선대들의 만남이 조금이라도 틀어졌으면 우리는 없다~!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신 거지~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선물 같은 성령의 열매

문소희 공로권사(분당구역)



은퇴 후에 여러 해를 지내면서 사랑하는 교회의 기본 집회에 충실히 참석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선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손에 올려주셨다. 심장 수명이 5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의사의 심부전증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과 약 처방을 받았고 약을 먹은 지도 2년 반이 지났다. 그 동안 자만했던 건강함이었지만 내 육신과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힘써 절제하게 되니 기운 빠지는 날들도 있지만 성령에 의지해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지 믿는다. 가정사역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려 노력하기에 최상의 것은 최후에 주신다는 감동의 말씀(요2:7-10)에서 그 답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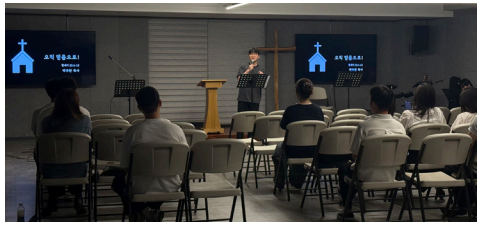
지난 6월에는 대만선교여행을 허락하셨다.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우리나라 삼분의 일 정도의 작은 섬나라에 도착한 그날, 강도 높은 지진으로 입국 환영을 체험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지만 현재는 우리보다 정체되어 있었고, 교인분들은 순수해 보였다.

십수 년 전에 중국 선교팀과 인연이 되어서 연동교인 12명을 '서진녀'라는 이름으로 황창연, 오순영 두 분 선교사님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셨는데, 두 분 선교사님 안내로 대만 북대교회 금요기도회 시간에 참석했다. 특별찬양과 함께 율동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드렸으며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 서로 중보기도하는 새로운 기도회 형식도 색다르게 경험시키셨다. 객가신학교도 안내해주셨다. 기독교 활동이 활발치 못한 대만에서 문서 선교로 대만의 영적 지붕을 그려가는 두 분 선교사님께서 그 전에 광야 같은 중국대륙에서 펼쳤던 십자가 체험의 영성을 〈십자가의 제자도〉로 발간했는데, 5개 협력교회가 소그룹에서 이 책으로 나눔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
"손에 올려주신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사노라면 최상의 것은 최후에 주신다는 확신으로 천성을 바라보며 행복한 노년을 기대합니다."

기도와 봉사, 말씀으로 정체성을 다져갑니다!

| 금요기도회





7월 18일과 8월 8일,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





7월 19일, 26일, 8월 30일, 비가 내려 무더위가 한풀 꺾인 토요일, 창신동 이웃을 향한 러브릿지 온(溫) 봉사가 어김없이 진행됐습니다. 하루는 중등부도 함께 참여해 청소년과 청년이 마음을 모아 따뜻한 손길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함께한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 HI청년부 여름수련회





8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강화수양관에서 "Identity(정체성)"를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이어진 기도 소리에 강화수양관이 좁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련회를 통해 깨달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예배





9월 7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그 땅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선 황보예원 자매의 간증이 있었고 부채춤과 워십팀의 특별 순서가 더해져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풋살 친교





9월 7일(주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경대학교 풋살파크장에서 형제·자매 풋살 친교가 열렸습니다. 제법 시원해진 날씨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뛰며 땀 흘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고 영육 간에 건강한 청년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다큐멘터리 시사회




9월 12일(금) 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현지에서 담아온 영상들을 통해 떨어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조로부터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다시 한 번 그 땅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교 후에도 편집으로 애써준 이수영 자매와 미디어팀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수련회로 여름을 불태운 청년들





청년들에게는 방학 혹은 휴가철인 7-8월, 귀한 쉼의 시간을 할애해 주일학교에 헌신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7월 12일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강화수양관에서 지내야 했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입 모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로 여름을 불태운 HI청년들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 남다은 기자

섬김을 통해 깨달은 수련회의 의미



유년부에서 수련회 때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면, 그리고 내가 임원으로서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라면 그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년부 수련회에 보조교사로 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뚜렷한 답은 찾지 못한 채 수련회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대체로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나도 힐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쉽게 다가갈 수 없었고, 내가 맡은 조에 그 아이가 있었다. 친해지기 위해 여러 번 다가갔지만,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그 아이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됐고, 지금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청년이 되었을 때 유년부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젠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가스펠 탐험대: 부흥 대작전'이었다. 나는 처음에 '부흥'을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는 성공의 모습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신유진 전도사님은 부흥이란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부흥은 1에서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0에서 1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곧 생명의 회복이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참된 부흥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유년부 수련회는 나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고, 어쩌면 내가 딱 유년부 수준이 아닐까 싶었다.

- 수련회는 왜 갈까?

이번 여름 나는 유년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세 번이나 강화수양관을 다녀왔다. 매년 수련회에 참여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있었다. 과연 수련회는 꼭 필요한 것일까? 예배의 자리가 주일예배로는 부족한 것일까? 왜 수련회에서만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일까? 모든 질문에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수련회가 특별한 '은혜의 장소'라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과 잠시 떨어져 있게 해주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수련회에서는 오롯이 말씀과 기도에만 마음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수련회를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주신 선물로 바라보게 되었다. / 조형준 청년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여름수련회를 다녀오며



안녕하세요. 현재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백진주입니다. 연동키즈로 자라온 저는 유아들을 좋아했고, 성인이 되면 꼭 주일학교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유아부를 섬기게 되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여름은 언제나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섬기느라 빠르게 지나가곤 했고, 늘 유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섬기는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무 살 여름, 초등부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의 연락 한 통으로 초등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매년 초등부 여름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를 다녀와 보니, 유아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말썽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열정과 웃음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배움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특히 항상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중등부와도 새로운 인연이 이어져 여름 수련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는 중1 친구들은 낯설어 쭈뼛거렸고, 중3 친구들은 사춘기의 부끄러움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중2 친구들이 가장 활발하게 어울렸지만,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감이 쌓이자, 둘째 날에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많은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신 수고가 모여 이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 백진주 청년(유아부 교사)

연동교회 첫 주일학교 여름수련회를 섬기며



안녕하세요. 8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열린 중등부 수련회에서 보조교사로 섬겼던 청년 윤주원입니다. 연동교회에 온 지 약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교회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윤태 청년이 하루 이틀 정도 짐 옮기는 일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부분 참석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마음 한 켠에서 전체 일정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 계획과 달리 전 일정을 참석하게 되었고, 우연히 단체 스트레칭을 맡게 되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함께하며 아이들과 웃고 떠들다 보니, '아이들이 어렵다'는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저에게 달려와 안기고, 손을 잡아주며, 장난을 치는 아이들 덕분에 제 마음은 어느새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사리 같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 또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섬김의 기쁨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윤주원 청년

샤론의 꽃, 그리스도의 향기 '수선화와 백합화'



영어로 'Rose of Sharon'에 해당되는 샤론의 꽃은 히브리 원어로 '하바쩰레트'이다. 이 단어는 수선화(아2:1)또는 백합화(사35:1)로 번역되었으며,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초원에서 자라는 꽃', '들백합화'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샤론의 꽃'은 샤론 평야에서 자라는 모든 아름다운 들꽃을 상징한다. 오늘은 그중에서 수선화와 백합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한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아2:1-2)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 자신을 단아한 꽃에 비유한 노래이다. 이 꽃들에는 겸손과 온유의 향기가 배어 있다. 샤론 평야는 꽃이 만발한 비옥한 땅이다. 그곳의 들꽃처럼 자신을 소개한 고백은, 겸손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샤론의 수선화와 함께 등장한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자 겸손한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다. 히브리 시에서는 아름다움과 연약함을 동시에 담아내며,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도 해석되어 왔다.

성지에서 백합이 자생하는 곳은 제한적이어서 레바논 국경 부근과 갈멜산 북쪽에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신앙을 상징하기도 한다. 골짜기라는 평범하고 낮은 장소에서 고귀하고 순결한 꽃인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이다. 낮은 자리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 속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샤론의 들판에서 피어난 수선화와 백합화는 고요한 향기를 지닌 꽃이다. 사람의 눈을 사로잡지 않아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그 향기를 우리는 한 방울의 향수로도 느낄 수 있다.


김환 목사

에르메*의 '오 드 나르시스 블루'는 수선화, 오렌지 블로썸, 갈바넘이 주요 노트이다. 상쾌하면서도 조용한 플로럴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갈바넘이 녹색 빛의 향을 열어주면서 수선화가 은은하게 퍼지며 꽃의 부드러운 향을 전한다. 같은 브랜드의 'H24' 또한 수선화가 메인인 향수이다. 이 향은 좀 더 아로마틱 그리너리한 허브향이 중심인 향수이다. 주요 노트는 수선화와 클라리 세이지, 로즈우드로 이루어져 있다.
좀 더 플로럴한 분위기의 향을 찾는다면 딥**의 '올렌느'를 추천한다. 수선화와 인동덩굴이 메인인 향수인데, 화이트 플로럴 향조가 깨끗하고 은은한 느낌을 전달한다.

백합이 메인인 향수로는 까르띠*의 '베제 볼레'를 빼놓을 수 없다. 깔끔하고 투명한 백합 향이 주를 이루는 향수이다. 세르주 루*의 '엉 리스'또한 매우 정제된 순수한 백합 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릴리 향수로 꼽히는 향수이다. 펜할리곤*의 '릴리 오브 더 벨리'도 백합이 메인인 플로럴 그린 계열의 향수이다. 순수하고 청량함, 은은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향이다. 맑고 투명한 봄 아침의 정원과도 같은 깨끗한 느낌을 준다.

샤론의 꽃은 낮은 자리에서 피어났지만, 고귀한 향기를 품고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눈빛과 미소에도 그 향기가 배어들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산과 함께 '놀이'하는 하나님의 아이들, "연뫼동이"



2013년 10월 3일 연뫼동이 첫 산행(북한산 사모바위)

산에 오르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자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우리를 위한 축복, 이런 걸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교인들과 함께 연뫼동이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초창기 멤버 박영만 안수집사께서 교인들을 향해 적극 구애하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누구나 환영!

연뫼동이는 혹한기(1월)와 혹서기(8월)를 빼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10~15명 회원들이 산에 오릅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나 조용한 신앙 생활을 원하는 교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안성 맞춤한 소그룹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환영 받으며 말없이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답니다.

북한산부터 아침가리계곡까지 12년의 걸음

올해 10월 3일이면 12주년을 맞습니다. 2013년 10월 3일 '연뫼동이' 이름을 달고 회원들의 친교와 건강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전도부와 협력해 산 아래 마을에서의 전도, 교회 노약자들과 호수공원 걷기 등 활동이 넓어져 갔습니다. 12년 동안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인왕산을 두루 올랐고, 서울둘레길 완주, 지리산 종주, 낙동강 세평길을 거쳐 올 여름엔 인제 아침가리계곡으로 트레킹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선재길 걷기, 한라산 등반도 계획하려고 합니다.

“따로, 가끔 같이” 하는 연뫼동이 2기 구상!

더 많은 교인 참여를 위해 남녀선교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 중심의 연뫼동이 2기도 구상 중이죠. 초창기 멤버들이 모인 1기와는 “따로, 가끔 같이” 산행을 이어갈 2기 멤버들을 찾습니다.





산이 주는 선물

연뫼동이는 12년 동안 쌓아온 어제의 발걸음을 딛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릅니다. 그 산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굽은 생각들이 펴지고 맺힌 마음들이 풀리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어느새 자연과 함께 ‘놀이’하는, 하나님의 천진한 아이들이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우리도 따라가 볼까요? / 박현미 편집장



▶등반대장: 이준일 은퇴집사, 회장: 안명훈 안수집사, 부회장: 이규성 피택장로, 나승호 안수집사, 총무: 김형기 피택장로, 고문: 박영만 안수집사

▶모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 산행, 연 2회 원거리 산행, 그외 번개 모임(8월, 1월 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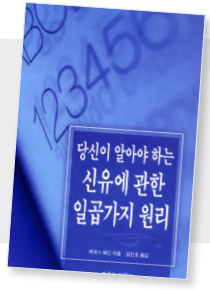
▶회비: 산행 참여시 1만원

▶가입 및 참가 문의: 임원을 비롯한 연뫼동이들에게

▶다음 산행: 10월 3일(금) 12주년 맞이 기념 산행, 장소: 추후 공지

당신이 알아야 하는 신유에 관한 일곱 가지 원리

케네스 해긴 지음, 김진호 옮김, 믿음의 말씀, 2000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성경 연구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는 '신유에 관한 일곱 가지 원리'는 믿음과 삶에 필요한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젊은 시절 불치병에서 기적으로 치유받은 후 70년 넘게 전 세계에 신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의 치유를 인도했습니다.

이 책은 다음 일곱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치유하셨다고 약속합니다.

○ 질병은 사탄의 공격이며, 예수님은 이를 멸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 구약과 신약 모두 치유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이 멀어지고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 치유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는 등 다양합니다.

○ 치유 과정은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 치유는 영적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마귀가 들어올 문이니 믿음을 붙잡아 대적해야 합니다.서로 다른 치유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 103:3)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치유를 베푸십니다.

공동체에 드리는 제안: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가족이 치유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임재철 기자

‘김진환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주니어 앙상블을 단순히 음악 집단으로 생각했으면 오래 하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한 주니어 앙상블 지휘자 김진환 집사님(중구구역)이 앙상블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며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앙상블은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교양과 악기의 기술 습득을 위해 피땀 흘려 인내하는 것을 교육하는 곳으로, 교회라는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안정적인 곳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깨달았던 게 매주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힘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진환 집사님 역시 교회 안에서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 같다고 앙상블을 시작하게 된 의도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앙상블은 군대를 제대한 후 최혜정 집사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주니어 앙상블이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는 과정에서 기술 이외에 신앙적 성장을 고민하며 이끌었던 에너지가 지금의 앙상블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환 집사님은 현재 뮤지컬 작곡가와 뮤직 크레이티브 프로덕션 컴퍼니인 〈아이딜릭뮤직〉의 대표로 있으며 교회에서는 초등부 찬양대 지휘와 주니어 앙상블 지휘 및 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주니어 앙상블은 김진환 집사님의 지도로 수많은 단원들을 배출하면서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도 교회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고, 교육에 대해 꾸준함과 정체된 것에 대한 고민으로, 언제고 그만두고 떠날 수 있다는 유혹과 싸우고 기도하며 교회 생활에 임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난무하는 지금의 시대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성장기, 사춘기 때 교회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선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연주하는 매주 2시간이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힘이라고 믿는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니어 앙상블이 오랜 시간 묵묵히 이어오며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힘은 이런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기에 김진환 집사님을 크게 칭찬합니다. / 이경아 기자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 소식

뵈레아 신학교 학생들이 개학과 함께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3학년 학생들도 작년보다는 한결 성장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학문하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뵈레아 신학교 졸업생 중 바나바라는 성실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요즘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가장 열심히 공부하던 밝은 학생이고, 영어도 잘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금요일마다 카페에 나와서 청년 자립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비전을 가진 귀한 사역자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CCT 방콕 본부에서 근무하는 니빠과 깔라야라는 두 사역자가 신학교와 사역장을 방문하기 위해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청년 자립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8월에 다시 방문하여 CCT 청년 그룹을 만나 함께 성장하게 되는 비전을 공유하며, 공동 사역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뵈레아 신학교 학생들이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교수진에게도 사랑과 긍휼함을 허락하소서
2. 21노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3. 청년 자립 프로젝트가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사역자들을 지원하게 하시고, 사역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4. 치앙마이 대학생 경배와 찬양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치앙마이에 꼭 필요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준비해가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5.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현준이와 대입 준비를 시작하는 현진이가 처음 시작하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6. 10인승 승합 차량 최소 1,150,000BHT(한화 약 5,000만 원)을 위한 특별 후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배운 여름수련회







8월 30일(토)부터 31일(일) 1박2일 동안 중국어예배반은 강화수양관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오픈 예배로 시작해서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말씀과 삶을 나누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로마서 12: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자"는 주제로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배우며, 각자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일예배 후, 왕산해수욕장에서 함께 바다에 발을 담그며 창조 세계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지체들과 교제하며 더욱 돈독한 공동체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WeChat ID : df7135

필리핀 성도들을 위한 기초 한국어 과정



외국인들에게 언어 장벽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동교회 다문화선교팀(팀장 허선미 권사)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기초 한국어 과정을 열었습니다. 총 23명이 등록했고, 그중 19명이 수료했습니다. 현재 두 번째 기수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은 학생들의 직장 생활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병원에 갔다가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은 실제 생활 속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언어 능력뿐 아니라 문화 이해에도 도움이 되어, 고립감을 줄이고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문법과 표현이 영어와 달라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끝까지 성실하게 배우며 도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격려와 인내로 함께해주신 교사들의 수고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WIN-Seoul 교회는 연동교회 다문화선교팀의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필리핀과 중국 성도들을 비롯한 여러 문화권의 이웃들이 서로 이해하며, 더욱 조화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한국에 온 이들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학생들을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주신 윤현 선생님과 보조 교사 김승애 선생님께 축복과 감사를 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Facebook : Abel Raby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피택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행 9:31)	12(토)~13(주일) 여름성경학교
	20	그리스도인, Jump! Jump! (행11:26b)	성경학교 후속활동(교회를 사랑해요)
	27	진짜, 가짜를 찾아라!(엘리야) (왕상18:39)	말씀집중주일
8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왕하 6:17)	8월 생일축하(박수아, 장혜영), 8월 말씀송 배우기, 유아부 최예원 전도사 설교
	10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스1:3)	말씀놀이(나무 블록으로 성전 짓고 감사기도하기)
	17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예배했어요(느 12:43)	말씀놀이(종이 블럭으로 성전 짓고 기쁘게 예배해요:마라카스 놀이), 교사 월례회&기도회, 새 친구 (김유나) 환영
	24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105:45)	말씀집중주일, 새 친구(최예서) 환영
	31	서로 힘을 모아 함께해요(전4:12)	말씀놀이(서로 힘을 모아 함께 해요)
9	7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세요(호 1:10)	9월 생일 축하(정희우)

/ 박윤신 부감




생일을 축하해요(박수아 8월, 정희우 9월)




새 친구를 환영합니다 (김유나, 최예서)



나무 블록 성전을 쌓아요



종이 블럭 성전을 쌓고



기쁘게 예배해요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해요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그리스도인, JUMP! JUMP!(행11:26)	여름성경학교
	20	우리는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엡4:23-24)	성경학교 후속 설교
	27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왕상18:39)	반별 말씀 암송
8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어요(왕하6:17)	8월 말씀송 배우기, 생일파티
	10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스1:3)	32과 공과활동
	17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기쁘게 예배했어요(느12:43)	33과 공과활동
	24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시105:45)	34과 공과활동
	31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요(전4:12)	반별 말씀 암송
9	7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세요(호1:10)	9월 말씀송 배우기

/ 정윤정 부장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즐거운 말씀시간


즐거운 말씀시간


튼튼한 성을 쌓아요



말씀송 발표


말씀 활동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여름성경학교	코너학습
	20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 점프! 점프!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1
	27	I'm a Christian!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2 / 7월 생일잔치
8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왕하6:17)	생일잔치
	10	다시 성전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 주셨어요(스1:3)	공과활동
	17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기쁘게 예배했어요(느12:43)	공과활동
	24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시105:45)	교사 월례회 /공과활동
	31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요(전4:12)	공과활동/8월 생일잔치
9	7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호1:10)	공과활동

/ 최정미 교사



여름성경학교 활동



예수님을 믿는 아이 찰칵~~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요♡



예배시간 늦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짱!!



예배를 돕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영원한 하나님의 약 (삼하 7:13)	7월 생일파티
	20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왕상 8:23하)	반별 말씀 활동(공과)
	27	2025 여름성경학교: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대작전	강화수양관
8	3	엘리사의 멋진 전략(왕하 6:17)	반별 말씀 활동(공과), 8월 생일파티
	10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스 1:3)	반별 말씀 활동(공과)
	17	기쁨이 넘치는 성벽 봉헌식(느 12:43)	반별 말씀 활동(공과), 전국 어린이대회 시상식
	2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시 105:45)	반별 말씀 활동(공과), 자녀 축복 기도회(8월 30일)
	31	우리 함께 도우며 살아가요(전 4:12)	반별 말씀 활동(공과)
9	7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호 1:10)	반별 말씀 활동(공과)

/ 성창원 교사



유년부 찬양대



전국 어린이대회(성경고사) 시상식



8월 생일잔치



즐거운 공과활동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다윗의 일기장(삼하 7:12)	모범반 선정 및 시상
	20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다!(왕상 8:23하)	공과 활동
	27	진짜를 가리기 위한 세기의 대결(왕상 18:39)	여름성경학교 행사
8	3	엘리사의 비밀병기를 찾아라!(왕하 6:17)	공과 활동
	10	Show Me The Promise(스 1:3)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 만들기 활동
	17	약속을 기억하는 성벽 봉헌식 스크랩북(느 12:43)	공과 활동
	24	하나님의 역사 속 인물 사진전(시105:45)	공과 활동
	31	반짝! 지혜연구소(전 4:12)	공과 활동
9	7	실화 "이상한 가족"(호 1:10하)	리마인드 성경학교

/ 김태정 부감


즐거운 센터학습(리마인드 성경학교)


아이들이 즐거운 예배시간



여름성경학교의 라디오쇼


주님께 기도드리는 아이들


요아정 만들기 활동



다 함께 율동 시간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특별활동 : 떡볶이 파티 (게임을 통해 추가메뉴 획득, 팀별 조리)
	20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특별활동 : 영화 감상(알라딘)
	27	여름성경학교로 휴무	
8	3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특별활동 : 빙수 만들기 (우유 빙수에 팥, 망고 등을 게임으로 획득)
	10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특별활동 : 이학주 집사님과 함께 쉐마 크래프트
	17	여름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특별활동 : 게임 대회 여름 어린이부 6주 출석도장 이벤트 시상
	24	하반기 AWANA 개강 “구원에 이르는 지혜”(딤후 3:15)	개강식, 소그룹 편성(44명) Game / 소그룹(성경암송) / 대그룹(예배/시상)
	31	하반기 AWANA “어부를 부르시는 예수님”(마 4:19)	개회식 / Game / 소그룹(성경암송)/ 예배 / 시상
9	7	하반기 AWANA “선한 목자”(요 10:11)	개회식 / Game / 소그룹(성경암송)/ 예배 / 시상

/ 윤종훈 부장



떡볶이 만들기



빙수 만들기



게임활동



어와나 개강식 깃발 입장



하반기 어와나 개강



어와나 게임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나의 수저는?(삼하 7:8-9, 13)	여름 수련회 신청 안내, 7월 생일 축하
	20	하나님과 우리의 티키타카(왕상 8:22-26)	7/26 예비일 새벽기도회 특송 안내 새 친구 환영, 권광호 전도사 생일축하
	27	누구를 따를 것인가(왕상 18:21,39)	여름 수련회 안내, 여름 수련회 안전교육
8	3	깨어나 움직이고 일어서는 신앙(빌 3:13-14)	여름 수련회 시상식 및 영상 시청, 여름 수련회 설문조사
	10	내 이야기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니이까(스 1:1-6)	설교: 전소망 전도사, 8월 생일 축하, 반별 모임
	17	무엇이 중요할까(느 12:27-43)	중고등부 연합예배 안내(8/24) 반별 모임
	24	하나님을 찬양하라(시 105:1-6)	비전 중고등부 연합예배(설교: 권광호 전도사) 단체 사진 촬영 후 간식 시간
	3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전 4:9-12)	새학기 특별새벽기도회(8/30), 중등부 학생 임원 리트릿(8/30-31) 떡볶이 간식과 함께 반별모임
9	7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호 1:1-2:1)	9월 생일자 축하, 여전도회 바자회(9/14) 메뉴 고르기, 세례입교 교육자 신청 받기

/ 박성윤 교사



중고등부 연합예배



중고등부 연합예배 단체사진



예비일 새벽기도회 특송



즐거운 떡볶이 간식 타임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3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삼하 7:8~13)	기말고사 끝, 떡볶이 파티~!!
	20	깨진 그릇이 더 아름다운 이유(왕상 8:22~26)	19일(토) 교사월례회 19~20일 찬양팀 수련회(교회, 여전도회관)
	27	목숨을 건 밸런스 게임(왕상 18:21~24,39)	26일(토) 온세대예배 특송, 러브릿지온 참여
8	3	믿음의 열매(갈 5:22~23)	8월 생일자 축하 1~3일 여름수련회(주제 : Mission : Faith)
	10	내 이야기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니까(스 1:1~6)	9일(토) 수련회 평가회, 수련회 감사편지 쓰기
	17	무엇이 중요할까?(느 12:27~43)	기도카드 작성
	24	하나님을 찬양하라(시 105:1~6)	중고등부 연합예배
	31	#같이의_가치(전 4:9~12)	30일(토)새학기 예비일 새벽기도회
9	7	이 결혼, 찬성하십니까?(호 1:1~2:1)	9월 생일자 축하

/ 이승원 부감




찬양팀 수련회




기말고사 격려 떡볶이 파티



중고등부 연합예배



중고등부 연합예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연동아이, Jump! Jump!


마을 곳곳에 사랑을 나눠요

주제 :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행9:31)
일시 : 7월 12(토), 13(주일)
장소 :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
참석자 : 학생 17명 / 교사 12명
봉사자: 장판규 전도사, 김인혜, 최경희, 최계숙(이상 권사), 김선일, 김세현, 성창국, 성창원, 신은효, 신임희, 이은영2, 임경선(이상 집사), 김정열, 김진아, 이정관, 전영선, 정신영(이상 성도)/ 총 17명

영아부 아이들의 여름성경학교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사랑을 온 마을과 세상에 전하는 시간이었다. 예배실 공간 전체를 마을로 표현하여 곳곳을 돌며 표정 카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해 보고 사랑을 전하였으며, 물놀이도 했다. 주일 예배 말씀은 청년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제 연극 '예수님을 믿는 아이 Jump! Jump!'로 전했다. 축도 후 '예수님 믿는 연동 아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레드카펫을 걸어 나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뒤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맛있는 식사 준비와 교사로 섬겨 주신 분들, 사전 준비를 위해 도와주신 씽씽연동구역분들과 성경학교에 함께한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박윤신 부감


나는 예수님 믿는 연동아이


나의 감정을 표현해요


물놀이 시간


교사 참여 주제 연극


예수님 사랑이 팡팡


다같이 웃어요~

예수님 믿는 아이, 우리는 유아부

주제 :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일정 : 7월 12일(토), 13일(주일)
장소 : 가나의 집 2층 유아부실
참석 : 어린이 16명 / 교사 12명

여름성경학교 시작 전 연동교회의 미래세대 아이들이 믿음 성장하고 교회에서 잘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교회마당에 아이들의 기도카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예수님를 믿는 아이, JUMP! JUMP! 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더욱 성숙된 자세로 프로그램 하나하나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자체로 은혜였다. 날씨가 뜨거웠던 만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마당 물놀이로 더욱 풍성하고 기억되는 성경학교가 되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날씨며 모든 환경 안전하고 은혜롭게 성경학교 진행되어 참 감사하였다. 기도카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주방봉사와 기도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 아무 사고없이 은혜롭게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정윤정 부장


단체사진


마당 물놀이


맛있는 점심시간


주제활동


성경학교 기념사진 전시


말씀찬양율동


텐트에 모여 공과공부


선생님과 함께

유치부 아이들도, 교사들도 점프점프!

주제: 예수님을 믿는 아이 점프! 점프!
일정: 7월12일(토), 13일(주일)
장소: 가나의 집 2층 유치부실
참석: 학생 22명 / 교사 15명
봉사자(식사준비): 박문숙 권사, 김진 권사, 박창숙 권사, 정미정 권사 외 여러 권사님들

이번 성경학교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온 해외 친구들도 함께하고, 기도하며 전도한 새 친구들도 같이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 점프! 점프!"라는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과 교사의 믿음이 더 점프 점프 자라길 바라며,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최정미 교사


나는야 연동 패셔니스타


하트뽕뽕 에수님 사랑해요 ♡


사랑을 나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연동 워터파크 개장



예수님을 믿는 아이 Jump ~~


우리는 예수님 나라 주인공!!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유년부' 부흥 대작전

주제: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일정: 7/25(금)~27(주일)
장소: 강화수양관
참석: 학생 33명 / 교사 27명
봉사자: 고수경 권사, 김경희 권사, 문소희 권사, 문춘애 권사, 이주형 권사,
조수남 권사, 김찬미, 유 승, 윤현종, 이주영, 조형준, 정준호 청년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정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한층 성장하였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환경과 은혜로운 날씨 가운데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창원 교사


공과시간


기도회


즐거운 물놀이


신나는 찬양율동



단체 사진

모두 함께 부흥을 경험한 초등부

주제 :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일시 : 7월 25일(금), 27일(주일)
장소 : 강화 수양관
참석 : 학생 46명, 교사 16명
봉사자 : 김선희 권사, 유정원 권사, 강희숙 권사, 김경미 권사, 라신현 권사, 양진실 집사, 신은효 집사, 김희전 집사, 김승규, 전관우, 김지원, 백진주, 송하람, 강하니, 황보예원 청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큰 문제없이 진행된 여름성경학교는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알아가는 아이스브레이킹, 성도의 삶을 경험하는 센터 학습과 공과공부, 성령이 함께하신 예배와 기도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물놀이와 연동 라디오쇼 등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의 추억을 새기는 시간이었다. 기도와 정성으로 수련회를 준비한 전도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로 아이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의 삶과 부흥에 대해서 알아가는 소중한 체험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이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 김태정 부감



조별 발표와 아이스브레이킹



성령이 함께하시는 기도회 시간



언제나 신나는 물놀이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



공과공부에 푹 빠진 아이들!



부흥의 소망주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님을 향한 영성을 깨우고 움직였던 중등부

주제: 깨어나 움직임을 UP
일정: 8월 1일(금) - 3일(주일)
장소: 강화수양관
참석: 학생 38명, 교사 37명(청년 섬김이 포함)
봉사자: 식사 - 여명선 장로, 원천숙 권사, 오영순 권사, 고수경 권사
간식 - 김은진 집사, 박성미 집사, 최은숙 집사
바비큐 - 최현수 장로, 황보성목 안수집사, 김동열 피택안수집사, 김희석 집사
남득현 집사, 윤복기 집사, 조형욱 집사

할렐루야! 여름수련회 첫 교사 준비모임을 시작했던 7월부터 여름수련회 마무리되는 8월 3일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첫째 날 예배로 여름수련회를 열고 바로 물놀이를 위해 수영장으로 출발, 수영장에 다른 외부인들과 함께 사용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주님은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수영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주셨다. 처음엔 쭈뼛쭈뼛했던 모습이었는데 금세 교사들과 학생들이 물속에서 정신없이 웃고 떠들며 더위를 한방에 날려 버렸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밤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골수를 쪼개는 말씀, 성령 충만한 기도회,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인도: 박종진 교사)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코너학습과 조별활동, 단체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아닌 함께하는 '우리'를 몸소 배우며 주님을 향한 영성을 깨우고 움직이는 즐거운 게임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여름수련회를 통해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길 바란다. / 박성윤 교사


수영장에서


조별 모임


즐거운 게임시간


성령충만 기도회 시간


성령충만 기도회 시간


즐거운 게임시간



단체사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주제 : Mission : Faith (히11:1)
일정 : 8월 1일(금) - 3일(주일)
장소 : 강화수양관
참석 : 학생 34명, 교사 16명
봉사자 : 김희석 집사, 윤복기 집사, 이은영 집사, 조형욱 집사, 황보성목 안수집사
강하니, 김민준, 김보성, 박승호, 이주영, 장하람, 조형준, 최현준 청년

수련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웠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고등부 지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승원 부감


첫째날 특강_왜 기독교여야 하는가


첫째날 집회


둘째날 집회(셀러브레이션)


둘째날 집회(기도회)


둘째날 집회(축복송)


첫째날 꼬꼬하(선생님 간증)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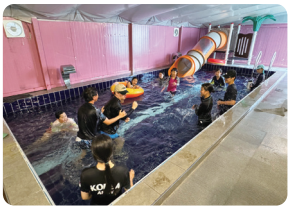
주니어앙상블 여름수련회

일정: 8월7일(목)~9일(토)
장소: 대부도 그랑비치펜션
참여: 학생 11명, 교사 6명
봉사자: 김수연2 집사, 이은영 2집사

주니어앙상블(지휘 김진환 집사, 단장 김선일 집사)은 2박 3일간 여름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주일에 한두 시간씩 모여 합주하는 연습시간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단원들이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장시간 연습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 사전 답사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였으며, 한 장소에서 악기 연습, 묵상, 쉼, 수영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른 사춘기가 찾아오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시기의 아이들이 '악기'라는 공통 주제와 목표 아래 함께 찬양하고 연습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감, 긍정적이고 깊은 교류를 나누면서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주니어앙상블 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감사한 점이다. 특히, 매년 수련회 기간마다 어김없이 달려와 아이들에게 레슨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OB(기존 주니어앙상블이었던 선배들: 강하니, 김한결, 유찬, 한지우, 황보예원)가 올해도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특별히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먼 길을 달려와 기도해주시고 큐티를 인도해주신 계대윤 목사, 이건희 목사의 응원과 격려, 많은 교인들의 후원, 토요악기교실에서 처음 악기를 배워 끝내 앙상블 오디션에 통과한 교회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가하였고, 펜션이라 식사 제공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 사정을 알고 기꺼이 자청하여 삼시세끼 영양 가득한 건강한 집밥을 차려주신 김수연, 이은영 집사의 헌신은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이들은 끼니뿐 아니라 통닭을 직접 튀기고 제철과일과 갖가지 간식을 끊이지 않게 제공하면서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관심과 정성들 덕분에 8시간 이상 고된 연습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주니어앙상블 수련회 너무 재미있어요! 겨울에도 또 해요!"라고 이야기하며 기쁨의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잘 자라나 미래의 연동교회 주니어앙상블 단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OB들이 되기를 또한 기대해본다. / 김선일 단장


단체 연습


둘째날 아침 QT


물놀이


점심식사


개별 연습


단체 사진

이웃과 함께하는 책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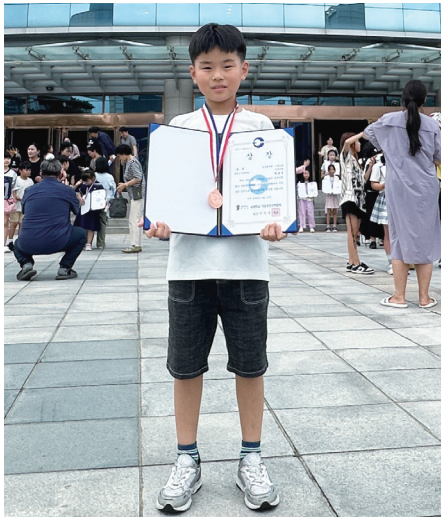




8월 9일(토) 어린이전도단(단장 양진실 집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름꿈방도서관(관장 강희숙 권사)은 교회 이웃들을 전도하고, 책의 선순환을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책바자회”를 드보라의 방에서 열었다. 이 날 전도 및 책바자회 홍보는 청소년 주일학교 전도사님들과 국내선교부 전도활동팀 권사님들이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교회 주변 및 대학로 일대, 효제초등학교, 그리고 ‘연지물놀이터’(연지동)를 다니며 도와주셨다. 이 중 ‘연지물놀이터’는 날씨가 더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와 비교적 가까운 공원이라 전도의 중요한 장소였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물놀이를 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계획했던 전도 및 책바자회 홍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무지개”처럼 효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연동교회 인근 소극장에 연극 공연을 관람하러 온 학생 및 학부모들을 책바자회로 보내주셨다. 교회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 연극 관람을 위해 교회 앞까지 왔던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연동교회에 들어오셔서 음료와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책들도 구입해 주어서 풍성하게 책바자회를 마칠 수 있었다. 몇 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이웃과 함께하는 책바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응답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행사였다.

아름꿈방도서관에서는 10월에도 “이웃과 함께하는 책바자회 2”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이웃들을 위해, 주일은 연동교회 교인들을 위해 연이어 이틀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책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정을 나누고, 이웃을 전도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아름꿈방도서관의 ‘책바자회’에 앞으로도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 양진실 기자

천안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어린이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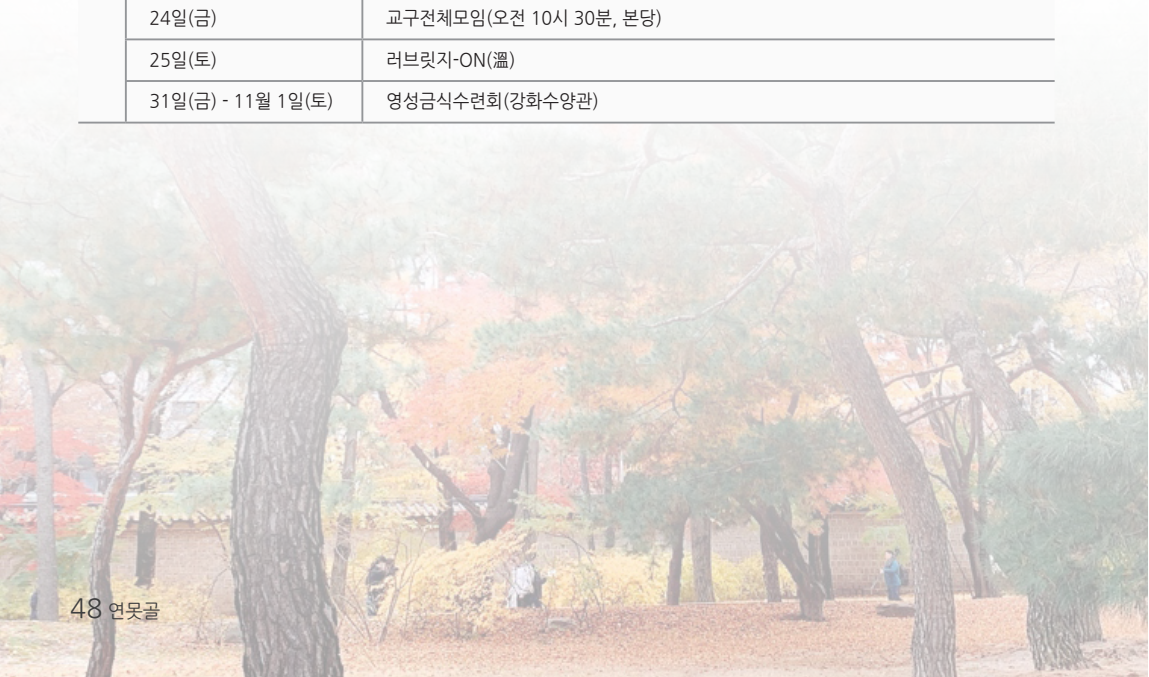
제34회 전국어린이대회가 8월 12일(화) 천안중앙교회(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대회를 위한 여는 예배는 박세웅 장로(수석부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렘1:4~7)라는 제목으로 윤광서 목사(총회교육자원부장)의 말씀 후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온 땅의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제창하였다. 이어서 대회는 최현수 장로(연동교회)의 사회로 대회사, 축사, 격려사, 대회 선언, 대회 선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동교회는 성경고사 종목에 유년부 2학년 박호준 어린이가 강북협의회 서울노회 대표로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했다.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5월 10일)와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7월 5일)에 참가했던 모든 학생들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 및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무엇보다 모든 대회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양진실 기자

종목	부서(학년)	이름
성경고사	유년부(2학년)	박호준(동)



9, 10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9	4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7일(주일)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예배(오후예배 시)
	10일(수)	이단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수요기도회 시)
	13일(토)	러브릿지-ON(溫)-2남선교회, 제8기 연동숲속아기학교 입학예배
	14일(주일)	AED 사용방법 교육(3부예배 후, 드보라의 방), 제4여전도회 바자회
	20일(토)	장년부 수련회(남양주 도자골 달뫼), 러브릿지-ON(溫)
	24일(수)	김지성 교수 초청 파이프오르간 연주회(수요기도회 시)
	26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10	2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4일(토)	추석합동추모예식(오전 11시, 연동동산)
	5일(주일)	성례주일, 입교·세례식(2부예배 시)
	11일(토)	러브릿지-ON(溫)-3여전도회
	12일(주일)	게일세미나(오후예배 시)
	13일(월) - 15일(수)	창립기념 특별새벽기도회(오전 5시 30분, 본당)
	15일(수) - 17일(금)	신앙사경회(오후 7시, 본당)
	18일(토)	제8기 연동숲속아기학교 수료예배
	19일(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기념축하음악회(오후예배시, 본당)
	22일(수)	YD샌드위치 콘서트(정오 12시, 더 게일홀)
	24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5일(토)	러브릿지-ON(溫)
	31일(금) - 11월 1일(토)	영성금식수련회(강화수양관)



2025년도
YBS 가을학기 개강

개강: 9월 첫째 주

강사	강의명	주요 내용	시간 및 장소
계대윤 목사	약속의 땅을 찾아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창세기~신명기 말씀을 연구한다.	토요일 오전 7시30분 드보라의 방
오한빛 목사	전도폭발	국제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생활화된 전도자를 양육한다.	목요일 오전 10시 210호
김 환 목사	소망의 나침반: 성경	성경이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임을 배우고, 그 권위와 신뢰성을 역사적·신학적으로 확인하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경관 교육이다.	토요일 오전 10시 210호
이진우 목사	소망을 회복하는 말씀묵상 (큐티학교)	큐티의 실제를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법과 생활 속에 적용하는 법을 훈련해서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께 인도받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수요일 오후 4시 드보라의 방
이건희 목사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사복음서 비교대조를 통한 소망의 메세지 찾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찾고 요한복음의 특수성에 대해 확인하며 사복음서를 비교대조하여 소망의 메세지를 찾는다.	수요일 오후 4시 210호
박주안 목사	북스터디: 팀켈러의 '예수, 예수' (청년부 성경공부)	팀켈러의 '예수, 예수' 책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서로의 생각과 느낀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적으로 성장한다.	토요일 오전 10시 더게일홀 뉴커머하우스
환경선교사 과정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 선교사 과정	기후위기 시대를 창조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한 지구돌봄실천의 자세를 배우며 녹색교회 실천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실제적인 적용의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토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교회를 사랑하는 최은숙1 집사

가즈아~ 하와이!

Vamos! Aloha~ Hawaii

왓두유 뽀리빙

연동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는지요?

열세 살 때 같은 반 친구의 인도로 처음 연동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는데, 연동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교회는 제게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를 넘어, 따뜻하게 품어주고 길을 안내해 준 '엄마 품 같은 곳'으로 느껴져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친한 교우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예전부터 늘 마음속에 간직한 여행지가 바로 "하와이"랍니다. 먼 곳이라 선뜻 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늘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라면 그 행복은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을 넘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나이 들어서도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여행이라면 그 자체로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ㅎㅎ

현재 하고 계신 일이나 관심 있게 참여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올해 초 다니던 회사의 근무 부서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보던 중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배우고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지금 공부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다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진다면, 1년 동안 자유롭게 세계 곳곳을 여행해 보고 싶어요. 단순히 관광을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삶의 감사와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배우거나 도전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우연히 팬플룻 연주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소리에 너무 매료되어 바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연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 실력이 정체된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통해 감동받았던 연주자들처럼, 자유자재로 팬플룻을 다루며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나만의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소소한 것들로 마음을 풀곤 해요. 때로는 생각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며 웃기도 하고, 그냥 푹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작은 쉼을 찾는 나에겐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나를 잘 표현하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제 딸이 저를 표현하는 단어로 '무덤덤'을 꼽아 주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대화할 때 호응을 크게 하지 않는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은 "참 잘 웃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무표정할 때는 의외로 차가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어요. 웃고 있을 때와 무표정일 때의 차이가 커서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만큼 웃음이 제게 큰 매력이고 또 나를 잘 표현해 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ㅎㅎㅎ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은숙1 집사(명일하남구역)와 함께한, 하와이 보내줄 거라 굳게 믿는 "왓두유뽀리빙" 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근무세무사 길지윤 청년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막연히 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영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경영학원론이나 마케팅 수업이 아닌 회계 과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학부 내에서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중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회계학과를 택하였고, 회계 관련 전문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입학했지만, 부끄럽게도 대학이라는 넓고 재밌는 세상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꿈마저 스스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꾸준히 나갔고, 수많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선교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무엇이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잊고 지냈던 제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다니던 일을 내려놓고 조금 늦게 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합격까지의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수술, 재정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긴 수험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겸손하게 다듬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로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오래 꿈꿨던 길로 인도하셔서 눈물로 뿌린 씨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는 시험 준비를 시작했던 날부터, 합격 후에도 예배를 지킬 수 있고 좋은 지도자와 동료들이 있는 법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 또한 이루어주셨고, 현재 좋은 세무법인을 만나 근무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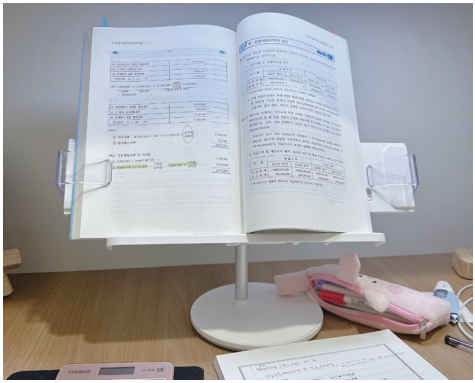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답은 사람에게서도 유튜브에서도 어떤 지식에서도 완벽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든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일찍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세무 상담과 세무사 시험 준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 010-8793-0095로 연락해주세요.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믿음의 새로운 여정, 연동교회 덕분입니다!”



김보성 성도(HI청년부)

2024년 11월, 서울에 처음 올라와 연동교회에 정착하게 된 HI청년부의 ***김보성 형제****(하두리셀)를 소개합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그의 신앙 여정은 이제 연동교회에서 믿음의 전환점을 맞으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연인 듯 필연적인 만남, 연동교회

김보성 형제가 연동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전 직장이 있던 창원의 교회 목사님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새문안교회와 연동교회, 두 곳을 추천 받아 고민하다가 연동교회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2부 예배 중 새로 오신 분은 손 들어달라는 말에 쭈뼛거리는 그의 모습을 본 옆자리 할머니 성도님이 손을 들라고 권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새가족실에서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교회가 가까워야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동교회를 먼저 오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선하게 웃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된 믿음

김보성 형제의 신앙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친할머니와 어머니의 전도로 아버지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 깊은 믿음은 없었어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연동교회에서 몇 차례 믿음의 전환점들을 맞으며 어느 순간 '제대로 믿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고, 신앙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진 연동교회 생활

연동교회에 적응하기까지 하이청년부 새가족부의 한지은 자매와 박예림 자매의 따뜻한 돌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

께 밥을 먹고, 여러 모임에 데리고 다니며 챙겨준 이들의 사랑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지은 자매의 셀에 소속되고, 박예림 자매와 함께 합셀 모임을 가지면서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박예림 자매의 권유로 시작한 영아부 보조교사 봉사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영아부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며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부 새가족부 시절 만났던 김영진 자매의 격려 덕분에 인도네시아 선교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근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셔서 순조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영아부에서 봉사하며 신앙이 깊어져 가던 차에 인도네시아 선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을 좀더 깊이” 만나게 해준 전환점이 되었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생활 태도와 행동들을 하나씩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믿음을 꿈꾸며

김보성 형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생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 이송팀에서 일하며 미래에는 소방구급대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중환자를 이송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선교 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구급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비전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요즘 그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우선으로 구하는 삶
- 일하던 중 만났던, 중환자인 아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한 그 어머니를 향한 위로와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
- 인도네시아 땅의 복음화
-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배우자를 만나는 것

끝으로 그는 "요즘 교회에 갈 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드는 건 연동교회 교인들의 사랑 때문"이라며, "연동교회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진심을 교회와 교인들께 전해주었습니다. 미소가 선하고 예쁜 청년, 믿음의 길을 연동에서 새롭게 걸으며 말씀에 순종해 살고자 하는 김보성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기도합니다.

/ 인터뷰와 정리: 박현미 편집장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사진 전시 및 설문조사





8월 3일(주일) 평신도교육부(부장 강사경 장로) 이단사이비대책팀(팀장 정금실 피택장로)은 교회 마당에서 이단 경계 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교인들의 이단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총회가 정한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를 통해 교인들은 “000도 이단이야?”라며 의외였다는 반응도 있었고, 통일교, 천부교, 안식교의 생산 제품들에 대한 전시 사진들을 보며 ‘이단 경계’의 예방 효과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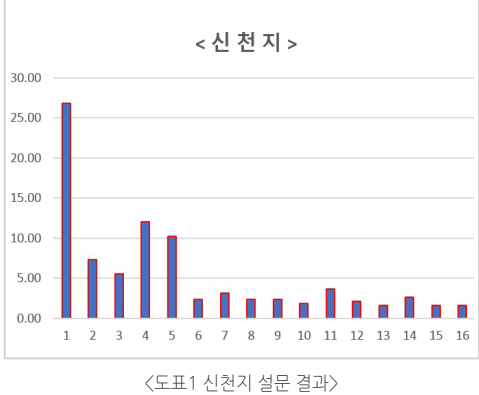
연동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접근여부 및 복음방>’에 관한 설문 조사도 진행되었는데, 총 38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학교와 학원 주변뿐 아니라 길거리나 전철, 버스 정거장 등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때, 순수한 마음과 사람 좋아하는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우리 자녀들, 자기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저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알면 피하고 경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 사람을 모략하려고 작정하고 위장하는 자들의 모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과 교리에 대해 좀 더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묵상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간 사랑의 교제 또한 빠질 수 없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지만, 주변을 돌아보며 피차 안부 묻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정금실 피택장로(이단사이비대책팀 팀장)



〈신천지 설문 조사〉



〈하나님의 교회 설문 조사〉



〈도표1 신천지 설문 결과〉



〈도표2 하나님의 교회 설문 결과〉

〈설문 최다 답변〉

신천지: (1번)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접근하여 신앙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 (2번) 부녀자들이 2인 1조로 접근한 적이 있다.

상반기 감사 실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장로)는 7월 20일(주일)부터 8월17일(주일)까지 5주간, 매주일 오전11시~오후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하우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이전과 다르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서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감사 일정 조율 및 불필요한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선된 방식에 따라 회계담당자는 기간 내에 감사 자료를 담당 감사위원의 자리에 두고 가면, 자료를 확인한 담당 감사위원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회계 담당자와 소통하여 정리하고 없을 경우 비대면으로 감사를 종결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과 목회방침과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윤신 기자

감사 대상 및 기간 : 제직회 각 부서 및 자치기관, 2025년 1월 1일~6월 30일
감사 대상 업무 : 대상기간 중 회계자료 및 2024년 결산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감사 제출 자료 : 예산집행내역서(3부), 회계 장부(교회 양식 및 자체 엑셀), 증빙서류(영수증 등), 통장 및 지적사항 이행 자료

연뫼동이, 아침가리계곡 트레킹





7월 26일(토) 연뫼동이 회원 12명은 한여름 폭염을 피해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아침가리계곡으로 트레킹을 다녀왔다. 인제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아침가리계곡은 손에 꼽히는 청정지대다. 맑은 물소리와 초록 숲이 어우러진 계곡 길은 걷는 내내 마음을 씻겨주듯 평온하고 상쾌했다. 출발하며 김밥과 떡 등으로 배를 든든히 채웠지만 트레킹 중간중간 쉬면서 챙겨온 오이와 삶은 달걀을 먹는 간식시간은 상쾌한 계곡 공기가 더해져 꿀맛 같았다. 특히나 계곡에 시원하게 몸을 담그고 어린아이처럼 한바탕 물놀이를 하고 난 이후에 둘러앉아 먹은 간식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숲길과 물길이 교차하는 아침가리계곡은 때로는 계곡물을 건너고, 때로는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몸을 고되게 했으나 마음은 오히려 가볍게 해주었다. 서로의 걸음을 배려하며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연뫼동이의 모습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었다. 아침가리계곡 트레킹은 자연과 함께한 하루,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평소 놓쳤던 감사의 순간들을 되새기게 한 귀한 시간이었다. / 김형기 피택장로(연뫼동이 총무)

제2여전도회, 제2남선교회, 러브릿지온 봉사



연동복지재단(상임이사 최현수 장로)에서는 창신동주민센터와 창신동 쪽방상담소에서 추천 받은 쪽방 80가구 가운데 매달 둘째주 30가구, 넷째주 50가구(청년부 담당)의 명단을 받아 생필품을 전달하는 러브릿지온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8월 9일(토)에는 **제2여전도회**(회장 문춘애 권사) 회원 10명이 주축이 되어 2남선교회원들과 함께 러브릿지온 봉사를 다녀왔다. 12시 30분 오병이어의 집에 모여 "생수, 햇반, 컵라면, 부탄가스, 통조림류, 물티슈 등 14가지 품목 18개 물품을 쇼핑백에 담았다. 동대문 뒤편 창신동 쪽방촌으로 이동해 지도를 보며 골목골목 가가호호 방문 후 인사하고 쇼핑백을 전달했는데, 1가구가 이사를 떠나 29가구에 전달되었다. "4층에 사는 어르신께 물품을 전달하러 올라가는데 계단이 좁고 가팔라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날까지 더워 어찌 사시려냐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송영옥 권사(2여 부회장)



9월 13일(토)에는 **제2남선교회**(회장 이규진 피택 안수집사) 회원 10명이 주축이 되어 3여전도회, 씽씽구역 회원들과 함께 러브릿지온 봉사를 다녀왔다. 12시 30분 가나의 집 중등부예배실에 모여 생필품 14가지 품목 18개 물품을 담아 쪽방촌 30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고 돌아왔다. "어둡고 좁은 방 한 칸, 통풍조차 잘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나눈 물품이 단순한 생필품을 넘어, 우리의 손길을 통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박흥열 피택 안수집사(2남 총무)

/ 박현미 편집장







새가족 양육을 위한 2단계 집체교육 세미나

8월 9일(토) 새가족부(부장 심현숙 장로)는 김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지난 2월에 열었던 새신자 집체교육 1단계 세미나에 이어 지난 6개월 동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집체교육 2단계 세미나를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열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는 개인별 맞춤 장점이 있는 1:1로 6주간 양육 방식의 새가족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6주간의 양육 후에도 새가족의 정착 연결고리가 미흡한 점이 엿보여 새가족부에서는 보다 많은 새가족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함께 배우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과 구역 및 자치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연동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집체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함께 배워 즐거운 집체교육

집체교육으로 전환한 이후 6개월 동안 진행한 집체교육 1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배우는 즐거움'이다. 여러 명이 동시에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고 교제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강사들이 팀을 이루어 준비하므로 교육 내용은 '통일되고 전문성도 강화'된 것이다. 개편된 새가족 양육 과정은 교회 소개와 신앙생활 안내가 중심(1단계 표 참조)이어서 새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쉽게 스며들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변화 덕분에 초신자들도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역과 자치기관장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어 상반기 정착율이 높아졌으니 세 겹줄 양육 개편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할 수 있겠다.

2단계 집체교육은?

새가족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되는 1단계 집체교육에서 친밀감을 높인 후에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성장하길 바라며 기존의 1:1 양육의 장점을 살려 집체교육 2단계를 고안하였다. 이를 위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제직회 은퇴자들과 기존 양육자들을 섭외하여 김환 목사로부터 그 취지와 과정, 교재교육을 듣는 세미나 시간을 가졌다. 그후 강사진의 의견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9월 7일(주일)부터 6주간의 2단계 집체교육을 시작하였다. 2단계 집체교육은 6주 동안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배우는 시간(2단계 표 참조)으로, 함께 묻고 답하는 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강사는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번갈아 강의를 맡음으로 부담을 줄이고, '강의의 깊이와 친밀도'를 더하고자 했다.

향후 새가족부 비전

새가족부는 더 많은 섬김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정착 전담팀'을 준비하고 있다. 1, 2단계를 거치는 10주간의 양육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새가족들의 돌봄을 전담하는 팀이다. 새가족 양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로 뿌리내리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역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심현숙 장로(새가족부 부장)

1단계 : 연동교회 소개
1주차: 교회 역사 소개
2주차: 위임목사님과의 시간
3주차: 교회 소개/ YD 투어
4주차: 공동체 소개(제직회, 구역, 자치회)

2단계: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1주차: 하나님
2주차: 예수 그리스도
3주차: 성령님
4주차: 성경과 예배
5주차: 기도와 찬송
6주차: 믿음과 교회생활

NCCK 연합예배



8월 10일(주일) 오후예배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로 드렸다. NCCK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은정 목사의 인도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NCCK회장, 한국정교회)가 환대의 인사를 하였고, 최준기 신부(NCCK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대한성공회 교무원장)가 죄의 고백을, 오세조 목사(NCCK 에큐메니칼신학과교육위원장)의 성경봉독(마태복음5:3-12) 후에 향린교회 국악찬양단 '예향'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제리 필레이 목사(세계교회협의회WCC총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봉헌기도는 최수산나 국장(NCCK화해와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이 하였고, WCC 중앙위원인 박도웅 묵사와 김서영 목사의 파송사가 있었다./ 진상협 기자

자녀축복기도회



하반기 자녀축복 기도회가 8월 30일 예비일 토요새벽기도회 시간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및 교인들의 참석으로 진행되었다. 영아부 아기부터 고등부 3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은 주일학교 각 부서별로 직접 작성해 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장로들의 축복기도를 받았다. 장로들과 참석한 모든 교인의 축복기도를 받은 자녀들은 오병이어의 집에서 함께 아침식사하며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여름방학에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 마음과 믿음이 성장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2학기를 맞아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한다. / 양진실 기자

세계선교위원회 소식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는 8월 30일(토) 드보라의 방에서 정기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에 후원 만기가 도래하는 다수의 지역에 대한 요약보고가 있었으며, 여름 동안 진행되었던 선교사 자녀 여름캠프 및 서울노회 중고등부 캄보디아 단기선교 후원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지난 여름 동안 두 분의 선교사께서 한국을 방문하셨다. 러시아 사할린 유용현 선교사 경우 귀국 후 7월 23일 수요기도회에서 선교보고를 실시하셨다. 또한 필리핀 이용돌 선교사 경우 갑작스런 대상포진으로 필리핀에서의 치료가 여의치 않아 긴급 귀국해 입원치료를 받으셨으며 연동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통해 합심하여 치유를 위해 마음을 모았고 사랑의 기금을 통해 긴급후원을 실시하였다. 이후 선교사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되어 8월 말 선교지로 복귀하시며 연동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다.

이번 여름 청·장년부 단기선교가 진행되었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금년 1년간 견습선교사로 활동중인 오요셉 청년은 최근 계속되는 현지 이민국의 간섭으로 인해 추가 비자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져 금년말까지 목표하였던 선교활동을 부득이하게 9월까지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세계 곳곳의 여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주기를 바란다./ 윤종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제2남선교회 야유회



8월 30일(토) 송추계곡으로 2남선교회 회원들과 가족이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더 깊이 교제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덕분에 야유회를 은혜롭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교제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린다.이번 야유회를 통해 얻은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연동교회를 섬기는 2남선교회가 되기를 기도 드린다./ 이규진 피택 안수집사(2남 회장)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예배



9월 7일(주일) 오후예배는 6월 30일(월)부터 7월 10일(목)까지 '우리의 몸, 영적 예배'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으로 다녀온 단기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 예배로 드렸다. 선교팀 총무 윤현종 성도의 인도와 선교팀 팀장 김영진 성도의 대표기도, 짧게 편집된 선교사역의 영상을 시청하고, 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윤종훈 안수집사의 선교 보고가 있었다.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 '사랑의 공동체'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었고, 올해 완공되어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최은주 장로를 비롯한 57명이 전도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선교훈련과 공연 등을 준비하였고, 바자회, 기도 등 교인들의 후원과 참여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장년부 정지훈 성도와 HI청년부 황보예원 성도의 간증이 이어졌고, 인도네시아 단기선교에서 선보였던 부채춤(성유정 성도 외 4명)과 K-pop & Worship (박기현 성도 외 9명)이 특별순서로 진행되었다. 김환 목사는 '뜻밖의 은혜'(요 2:7~10)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코로나를 겪은 이후 세대가 연합한 선교가 다시 열렸다는 큰 의미를 전하고, 선교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는 설교를 하였다. / 고현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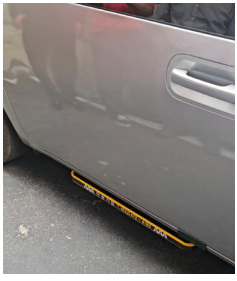
이단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



9월 10일(수) 수요기도회는 계대윤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종말의 미혹을 경계하라'(마 24:3~5)는 주제로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의 이단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 강연 예배로 드렸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소개하고, 교리와 관련하여 미혹하는 질문을 분별하는 지혜와 돌아오는 이들을 품는 교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고현수 기자

교회 승합차에 편의장치 설치





8월 21일(목) 교회 승합차(스타리아)에 승하차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과 자동발판을 설치했다. 자동문은 운전석에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했기에 앞으로는 직접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발판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 계단처럼 편안하게 딛고 오르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9월 17일(수) 구조변경 신고 및 검사를 받았다. / 김종은 기자

제8기 연동숲속아기학교 개강



9월 13일(토) 8기 연동숲속아기학교가 시작되었다. 1주차는 개강 예배와 활동 그리고 '입학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걸었다. 입학식 후 떡케이크에 초를 꽂고 입학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간식을 나누며 1주차를 마무리하였다. 9명의 유아들이 함께 하는 이번 8기의 주제는 '하나님 닮은 연동아이'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박윤신 기자



교육대상 : 생후 18~36개월 어린이와 보호자
교육기간 : 9월 13일(토)~10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10월 4일(토) 추석 연휴로 휴강)
신앙교육내용 : **하나님 닮은 연동아이**(이번 주제를 포함하여 창조, 사랑, 예수님 4개의 주제가 각각 4학기로 진행)

제4여전도회 선교비 마련 바자회





9월 14일(주일) 제4여전도회(회장 장의숙 집사)는 미자립교회 선교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교회 마당과 오병이어의 집에서 열었다. 다양한 덮밥과 국수, 닭강정, 샌드위치 등의 음식 판매를 비롯하여 매실청, 아귀포 등 모든 음식과 물품이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몇몇 물품은 추가로 예약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바자회를 위해 4여전도회 회원들과 다른 자치기관의 돕는 손길들은 13(토), 14(주일) 이틀 동안 새벽부터 나와 수고하였다. 4여전도회는 만운교회(경북 안동)와 벌방교회(경북 예천)를 후원하고 있다. / 박윤신 기자

'종로오가다-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손뜨개 모임



9월 11일(목) 연동교회와 종로5가역 인근의 나무들에 뜨개옷을 입히는 '종로오가다-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손뜨개 자원봉사 모임이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은 총회 문화법인(이사장 김운성 목사, 사무총장 손은희 목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목요일 10주간(9월 11일~11월 27일) 손뜨개로 만든 편물들로 성탄 즈음에 주변 가로수를 꾸미는 작업이다.

첫 시작인 이날 오전에는 제주와 부산, 익산, 안동, 광주, 대전, 서울 등 전국 9개 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오후에는 자원 신청한 손뜨개 봉사자 35명이 모여 앞으로 10주간 이어질 작업을 시작했다. 시작 전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1기 멤버인 장연화 공로권사(봉사단장)는 "연동교회가 있는 주변은 기독교가 들어온 성지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총회사무실과 기독교 연합회관 그리고 여전도회관 등이 있어 이 곳에 뜨개옷을 설치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음"을 인사말로 밝히며, "2023년 당시 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트리니팅 작업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고, "거리를 오가는 분들이 장식을 유심히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는 40그루 나무에 뜨개옷을 입힐 예정이다. / 박현미 편집장, 사진: 한국기독공보(2025.09.12)

박정숙2 집사, <통증일기> 북콘서트



7월 27일(주일) 오후 3시부터 414호(찬양대실)에서 박정숙2 집사(명륜연건구역)의 <통증일기> 시집 발간을 축하하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박정숙 집사를 사랑하는 연동의 친구들' 주최로 연동교인 40명이 참여했다.

북콘서트 취지와 책 소개, 저자 소개에 이어 저자와 지인들의 시 낭송과 저자와의 에피소드를 듣는 1부 '만남과 소통', 저자에게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을 듣는 Q&A, '통증' 시 노래, '감사' '은혜' 찬양을 함께 부른 2부 '공감과 나눔' 뒤 단체사진, 사인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당시 연동교회 부목사로 박정숙 집사의 결혼주례자였던 임대식 목사와 사모님이 박 집사의 페이스북에 실린 북콘서트 포스터를 보고 수십 년 만에 깜짝 방문해주셔서 모두에게 놀라움과 기쁨의 감동을 더해주었다. 그 동안 몸이 많이 아팠고, 그런 만큼 거동이 더 어려워져 교회 출석 대신 유튜브에서 예배 드려온 박 집사를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은 그녀가 10년 동안 쓰고 갈무리해온 시와 이야기, 찬양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박정숙 집사는 "내 평생의 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을 만들어준 연동 교인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는 인사를 전해주었다. / 박현미 편집장





<통증일기>에 수록된
시 낭송과 <통증> 노래가
담긴 북콘서트 영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The 110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 55:7, 엡 4:31-32

일시: 2025. 9. 23.(화) ~ 25.(목)

장소: 영락교회

PCK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 첫 출석 아기 8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정해솔 아기(남, 2024년 5월 8일생)
정지훈 성도, 김보림 성도 아들/ 씽씽연동8구역

살아계시는 하나님, 해솔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찾아온 해솔이를 부족한 저희 뜻과 욕심으로 키우지 않도록 주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해솔이가 받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해솔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해솔이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솔이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해 주세요.

새가족 소개


권성주(4교구 삼선구역)


김동선(1교구 명륜구역)


김영빈(4교구 중구구역)


김정화·김영현(4교구 장안구역)


박금렬(2교구 동대문구역)


안효구(3교구 수유구역)


이선미(2교구 동대문구역)


최영미(5교구 원남구역)


최종걸(3교구 안국평창구역)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7, 8월 러브릿지"溫(ON)" - 함께 나누는 마음, 삶을 잇는 러브릿지온

▶ 7월 12일, 26일 그리고 8월 9일, 23일(토)에 러브릿지온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매달 두 차례, 지역의 독거 어르신 80명과 다문화가정 6가구를 찾아가 여름철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전했다.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시원한 여름 이불과 건강 음료,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하며, 이웃들의 일상에 힘을 더했다. 매회 상황과 계절에 맞춘 세심한 준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연결의 나눔'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러브릿지온은 늘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과 돌봄의 다리를 이어가고자 한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수박수영장에 다녀왔어요

▶ 7월 한 달간 여름을 느끼며, 수박과 관련한 주제로 아이들의 놀이가 진행되었다. '수박 수영장' 전시회를 중랑 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배움을 연계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8월 7일(목) 전시회 관람을 다녀왔다.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가 더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 유아반 아이들에게는 '수박 수영장' 동화책을 각 가정에 배부하여 가정과 연계한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이들의 관심의 시선을 따라가는 놀이 지원을 통해 사물을 깊게 알아가길 희망한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여름캠프-원마운트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8월 1일(금) 여름방학을 맞이해 고양시로 여름캠프(원마운트)를 다녀왔다. 전반적으로 캠프 활동은 원활히 이루어졌고, 아동들도 다양한 워터파크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원마운트에서 아동들은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신체 활동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 원마운트에서의 활동에 아동들은 매우 만족했고 간식과 물놀이장에서 먹은 점심도 맛있다고 이야기했다.

신협 현황

(7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48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812,586	39,776,901	2,325,625	943,657	48,858,769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2,336,924	690,345	69,810	15,761,690	48,858,769

(8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50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872,867	40,330,775	2,400,324	932,003	49,535,969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500,182	852,453	87,205	15,096,129	49,535,969

목양위원회

■결혼식

• 박하영(박원일 목사, 이미정 사모/청년부) 양과 한정우(한동환 안수집사, 이영희 권사) 군 9월 6일(토) 오후 4시
대구 엘파소하우스웨딩 4층 단독홀

■장례식

• 배옥연 명예권사(이성자 성도 모친/고양구역) 별세, 7월 18일 대전현충원에 모심
• 김 단 은퇴집사(김두옥 공로권사 남편/과천안산구역) 별세, 7월 26일 연동동산에 모심
• 지규환 님(지영석 성도 부친, 정두연 성도 시부/용인구역) 별세, 7월 26일 백합의뜰에 모심
• 박종남 은퇴권사(이수진 은퇴장로 모친, 김혜경 권사 시모/동대문구역) 별세, 7월 30일 연동동산에 모심
• 임숙영 은퇴집사(오성원 성도, 오덕원 성도 모친/압구정청담삼성구역) 별세, 8월 3일 대지공원묘원에 모심
• 이기상 집사(이병주 성도 부친, 정양순 성도 시부/길음구역) 별세, 8월 5일 홍성 선영에 모심
• 이정애 성도(정지원 집사 모친, 최윤영 집사 시모, 정재엽, 정유나 성도 조모/연희홍제구역) 별세, 8월 15일 백합의뜰에 모심
• 김옥순 권사(박종화 피택장로 모친, 장진경 권사 시모, 박준수, 박지수 성도 조모/성북1구역) 별세, 8월 15일 정수원에 모심
• 조윤환 은퇴집사(기은실 은퇴장로 남편, 조재형 성도, 조재연 성도 부친/구리남양주양평구역) 별세, 8월 25일 백합의뜰에 모심
• 안숙경 권사(박은옥 공로권사 모친, 김상대 공로안수집사 장모/수유구역) 별세, 9월 1일 서울현충원에 모심
• 장덕환 성도(유진순 성도 남편/일산구역) 별세, 9월 8일 양주 신세계공원묘지에 모심
• 안영순 집사(정윤석 안수집사 모친, 김소연 집사 시모/씽씽연동3구역) 별세, 9월 11일 예산장로교회 추모공원에 모심



(이름: 연락처: 소속:)

6-7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여주미(종로5.6가)-5465



조선영(명일하남)-7541



성열숙(낙산)-0647

진예현(초등부)-0117, 남상옥(효제구역)-4380, 오태이(동대문구역)-5217, 오태우(동대문구역)-5217

*8-9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11월 16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 못 골 제 57권 622호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5년 9월 21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윤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남다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꽃이 폈고
가뭄에도 나무가 자랐습니다.
단단히 손잡고 여름을 살아낸 작은 이파리들은
보름달 같은 열매를 달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키우십니다.

8-9월호(622호)